

사회환경 담당으로서 「리칸델(Likander)」에 참가

- 1 **지자체명** 러시아 연해주 지방
- 2 **발표자** 아르게트킨비크톨(Argetkin Victor)
연해주 지방 나데이진스키(Nadejinsky)지역
보리나·나데이진스코예(Volno-Nadejinskoye) 마을
제1중학교 7학년
- 3 **활동명** 사회환경 담당으로서 「리칸델」(Likander)에 참가
- 4 **활동 기간** 2005년 8월
- 5 **활동 장소** 리칸델 반도, 포포후 섬
- 6 **활동 참가인원** 8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피여틀 대제만 해안의 환경 상황 악화

8 발표 요지

우리는 지구 최대의 해양인 태평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나데이진스키 지역은 피여틀 대제만의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여틀 대제만은 러시아 국내에서 다양한 식물과 해양생물이 가장 풍족한 해양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에서 유일한 국립 해양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로 인하여 피여틀 대제만의 오염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깨끗한 채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안선 주변의 모든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학교 학생들도 이러한 해안 오염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내에는 러시아에서 1개 밖에 없는 아동 해양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350종 이상의 해양생물과 식물, 또 100개 이상의 해저 사진이 전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시품은 학교 학생들이 학습 여행이나 소풍 때에 수집한 것입니다.

전시장의 면적은 40㎡밖에 안됩니다만, 전람회는 매우 효과적이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장을 찾아오는 지역 주민과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준비하고 피여틀 대제만의 생물 뿐만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설립된지 벌써 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방문자 수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문화 교류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마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또 한가지 환경보전 활동에도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6년간에 걸쳐 매년 여름에 학생 30명이 포포후섬에서 사회환경 담당으로서 「리칸델」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포포후섬은 관광객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환경에 주는 나쁜 영향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환경 담당자」는 포그라니치나야 후미의 해안에 위치한 국립 극동 해양 보호구역 북부의 환경보호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설립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담당자의 과제는 지역 보호 제도를 지키고 포그라니치나야 후미 남부와 해양 보호구역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2005년 8월에 우리 반 학생들도 이 담당 활동에 참가 했습니다. 활동 참가기간 중에는 해안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해양 보호구역의 스태프가 구역 내의 룰과 위반 방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해양 보호구역사회 감사 증명서】을 주었습니다.

활동 기간중에 해양 보호구역 근처에 체재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알렸습니다. 그 룰을 설명하는 팜플렛 등을 나눠주고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 주의(주의 회수 전기간중 786회)를 주었으며 위반에 대해서는 해양 보호구역 스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매일 담당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포포후섬의 해안이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일동안 8명의 멤버로 3,000평방미터 지역에서 쓰레기 50봉지를 모았으며 이것은 평균 하루 약 2,570개의 쓰레기로서 그 중 90% 정도는 생활 폐기물로 밝혀졌습니다.

플라스틱류 (봉투, 페트 병 등) 약 80%

유리류 (병 등) 7%

금속류(통조림캔, 뚜껑 등) 4%

종이류 2.3%

쓰레기를 수거 하면서 느낀 점은 관광객이 체재하고 있는 지역이 쓰레기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부근에 한층 더 심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안을 걷고 있을 때, 해안에 많은 해파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가 스텝에게 질문을 했더니, 가까운 섬에서 이웃나라 사람들이 토지를 일부 구입하여 공장을 건설해, 거기서 해파리를 한방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파리의 어떤 물질을 채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진 해파리들을 그냥 바다에 버려 이것들이 해안으로 흘러 들어와 표착하게 된 것이라고 말 해 주었습니다.

환경 담당자들은 환경보호를 테마로 한 간판(10개)과 해양 보호구역의 범위를 지정하는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섬에서는 식물 공원의 건설과 섬을 개선하는 작업 등을 돕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고 해양생물학 분야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것을 배웠으며 【리칸델 해안의 해양생물】이라고 하는 콜렉션을 만들어 학교 해양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활동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매일하는 작업과 쓰레기 수거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나중에는 관광객이 많아도 해안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지 않은 풍경이 우리들을 제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지구와 해양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